

민주野統 '수입기구' 싸고 갈등

(아권통합)

손-박 원칙적 합의 불구 역할론에 이견 통합협상 관련 "주도권" "추인가구" 팽팽

민주당이 야권 통합에 대한 단일 대 오를 형성했지만 통합 수입기구 구성 및 역할, 통합 결의 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저녁 긴급회동을 갖고 '12월 통합 선언-1월 지도부 선출'이란 원칙에 합의했으나 통합 수입기구의 역할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손 대표 측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안에 따르면 통합 수입기구는 협상 창구기구보다는 그간의 협상 내용을 추진하고 통합을 결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통합을 위한 실무 협상은 통합추진위원회나 현행 지도부로 구성된 야권통합 연석회의가 담당하고 수입기구는 이를 최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12월 전당대회를 통해 합당을 결의하고 수입기구 합동회의의 결의로 신실 합당을 완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 전 원내대표 측의 생각은 다르다.

통합 수입기구는 새로이 구성돼야

하며 통합에 대한 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주선 최고위원이 제시한 방안으로 다음 달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족된 수입기구가 주도적으로 당헌, 정강, 정책 등 통합 관련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석회의나 현재의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을 위한 수입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입장으로 수입기구 구성과 역할 문제는 야권 통합의 새로운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손 대표 측 인사는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에서 수입기구를 만든 다음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시간이 늦어져서 연내 전대를 개최하지 못 한다"며 "수입기구 구성 전이라도 그에 준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통합 논의를 계속해가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원내대표는 "나는 박주선 최고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손 대표와 합의를 했다"며 "민주당 전대에서 통합을 의결하고 수입기구를 구성해서 최종적인 합의를 하면 통합 전



통합 전당대회 방식 논의 등 야권통합을 위한 최종 동의절차를 밟기 위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입기구의 역할이 핵심 쟁점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야권 통합 절충안에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수입기구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의총에서는 기존의 당내의 통합추진위원회를 보강,

다음 달 전당대회 전까지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전당대회에서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 수입기구가 최종 통합을 마무리하는 절충적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통합 의결 방식과 관련해서도 투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수입기구 구성과 역할, 전당대회에서의 투표 여부 등에 대한 당내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주도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힘 겨루기'는 제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홍준표 교체론·박근혜 역할론 등 격론 한나라 쇄신연찬회 대충돌

홍대표 "대다수 박 전대표 복귀 원한다면 물러나겠다"

2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 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홍준표 대표 교체론과 박근혜 역할론, 정책 쇄신 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홍준표 대표 등 국회의원 130명과 원내 당협위원장 60명 등 전체 258명 중 190명이 참석했다. 연석회의 초반 박근혜 전 대표를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말에 나선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밝히면서 연찬회장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홍 대표는 "여러분 대다수의 뜻이 박 전 대표께서 당 대표로 복귀해서 쇄신과 총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정되면, 당권·대권 분리 조항을 정지시키는 당헌 개정을 한 후에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홍준표 교체론'을 의식, 의원·원외 당협위원장에 사실상 재신임을 물은 셈이

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연찬회에서는 지도부 퇴진론과 박 전 대표 역할론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는 등 격론이 이어졌다.

김문일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 도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재영입 권한을 도당위원장에게 부여해주

는 등 중앙당의 전폭적인 선거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석패율제 도입 또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정현 의원과 같은 분을 앞 선순위에 배치해 호남 의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저녁식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최고위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최경환, 동신고서 3교생 대상 특강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은 29일 오전 광주 동신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남길 얼굴과 발자국'을 주제로 강연했다.

최 실장은 이날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삶에서 보여준 용기와 실사구시 정신·노력·신앙·가족·감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미래세대 젊은이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이 낳은 위대한 정치가였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였다"라며 "젊은 이들이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신 속에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을 배워 아름다운 얼굴과 발자국을 남기는 '젊은 김대중'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난치성 질환 학생 지원 예산 줄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호 의원은 29일 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내년 회귀 난치성 질환 학생에 대한 지원액이 5063만원으로, 올해 1억5000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원 학생 수도 올해 150명이었으나 내년에는 50명에 그칠 전망이다. 매년 지원 대상이 급감하는 것은 한번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재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난치성 질환 학생 지원액을 삭감한다면 교육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회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학생 수는 동부교육청 관할 119명, 서부교육청 144명으로 모두 263명에 이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예산 증액"

광주시의회 이은방(민·북구 6) 의원은 29일 "2012년도 분 예산에 책정된 2300만원의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분 예산 심의에서



신재민 前차관 구속 '광주혁통' 시당 오늘 창당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심재돈 부장판사)는 28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게서 악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구속수감했다.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차관은 현 정부 들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으로 기록됐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0시50분께 "죄송하다는 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연합뉴스

광주 혁신과 통합은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내일신문 3층 강당에서 시민통합당 광주시당을 창당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당 창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 정당건설준비위원회는 정당 아니므로 합당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야권통합을 손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과 통합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중순께 민주당과 신실합당을 위한 통합의 한 축으로서 '시민통합당'을 새롭게 창당하기로 결정했고, 광주 혁신과 통합도 지난 2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시당 창당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여준 "안철수 정치쪽으로 기운듯"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29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치 참여 여부에 대해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정치를 좁은 의미의 정치로 보면, 아직 발을 안 들여 놓은 거죠"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가끔 만났던 5월에 8월 사이의 기간 중에는 본인은 정치를 할 생각을 해 본 일도 없고, 정치에 자기 체질에 안 맞는다는 말을 쫓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정치를 한다고도 안 했지만, 안 한다고도 안 했다"며 "총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

가왔고 안 원장도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안 하겠다'는 말을 했을지라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무런 근거는 없고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 원장의 멘토로서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안 원장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의 멘토라고도 생각해본 일 없고, 책 쓰는데 몰입했기에 9월 2~3일 통화한 이후에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그런 일(창당) 자체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거리를 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형체인점 임대상담 환영

토지면적 2247 m² (680평)
지하 1256 m² (380평)
나이트클럽 적합!!

(구)그랜드 호텔부지! 철거완료!

권리금 없는 마지막 남은
충장로 황금 상권 임대!!

문의 1661-3232 | H,P 010-4794-8092

(주)미투종합건설

발목펌프 운동

신개발 편백나무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 운동봉이란?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아파트용) 75,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봉(아파트용) 55,000원
- ▶ 경침 겸용 운동봉(주택용) 30,000원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6-1
농협: 601154-52-335334 서영성

제일건강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료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